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의 정서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전통 시장이 위태롭다. 전통시장은 최근 대형마트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그리고 백화점 등 대기업에 밀려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흡수병과 방문판매까지 가세해 전통시장의 설자리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로만 보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의 위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민경제와 직결된 전통시장을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배의 차원에서 재조명할 필요는 충분하다. 정부는 그동안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의 지혜

식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왔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1km안에 접근금지, 그리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0~8시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보호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형마트나 SSM과 취급품목을 구분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마트나 SSM은 전통시장이 1차 상품을 위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기업의 전 품목 판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구분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역으로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1차 상품의 구입을 위해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 문제는 대기업에 대해 강제적인 판매품목 규제 보다는 도덕적 차원에서 대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

정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앞선다. 전통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부족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이미 많은 전통시장이 일본 등 선진국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시설면에서 과거보다 월등하게 개선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대형매장의 시설과 서비스를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차 상품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전통시장을 찾게 하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전통시장은 문화적 유산으로 보존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유명세를 타는 전통시장은 특화시켜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전통시장은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고 있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한 전통시장의 위기는 대기업 2-3세대가 소상공인들의 밭그릇인 빵집과 커피숍에 까지 진출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요즘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업의 최종적 목표가 이익의 극대화 추구라 할지라도 도덕적 경영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시장이 살아야 서민 경제의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 영세상인의 뒷까지 나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 역시 전통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보호만으로는 정책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단순한 지원은 전통시장에 산소호흡기를 던지고 연명케 하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물고 기 접는 기술을 가르치듯 전통시장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존립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社說

‘연등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1월 27일 연등회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앞으로 지정 예고가 공시되는 30일 동안 특별한 결격 사유나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연등회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된다. 조계종의 속원과도 같았던 이번 일의 성사에 당장 조계종 총무원에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은 대법원 정만 스님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연등회 문화재 지정 예고는 세계에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조계종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7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를 수립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크고 작은 지적들에 발목이 잡혀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조계종은 그간의 어려움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그치지 않고 세계문화유산 지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문화재 관련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88올림픽 때 사용하던 굴림쇠도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세상 이 됐다. 모든 일은 시절인연이 좌우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에 요행은 없다. 조계종의 연등회 지정을 위한 노력, 문화재위원을 비롯해 국회 정각회원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불자들의 노력 등이 있었기에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불교계의 이번 연등회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불교계의 노력과 사회의 전통문화 인식 향상이 선행했기 때문(同時)해 이뤄낸 쾌거이다. 조계종의 계획처럼 이번 연등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인정받을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돈봉투’ 파문 자정 계기되길

범어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가 돌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계종이 발칵 뒤집혔다. 범어사는 주지 선거 한참 전인 지난해 8월에도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모 스님이 수백만원의 기도비를 말사를 찾아다니며 윤택했다고 해 과열선거의 우려가 있던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총무원장스님도 1월 16일 후보스님들을 불러 각서를 받았다. 후보부도 담화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건은 교계 한 인터넷 언론이 돈봉투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KBS와 한국일보 등이 크게 보도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여야 할 것 없는 금

전수수 의혹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격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인터넷에서는 조계종과 불교계를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줄이였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종결사 등 승가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정을 촉구했다. 교구분사주지협의회도 관련자 참회와 선거법 개정 등을 제안하며 성명서 발표까지 채택하고 나섰다. 회의에서 언급된 범어사의 사교사찰 지정은 과열된 범어사 분위기를 국부적으로 진화시킬 방안일런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 조계종에 필요한 것은 대중요법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각고의 노력이다. 그래야 불교가 산다.

사부대중 칼럼



정 도 슨 임
통도사
양산전법화관 주지

2012년인 올해는 ‘혹룡의 해’라고 한다. 새해 새날을 맞아 모두들 커다란 희망 하나씩은 가슴에 품고 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모든 사람들이 조금의 불만족보다는 커다란 만족을, 작은 불화함보다 대승적이고 원용무애한 화합을, 불행보다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살맛나는 한 해하기를 바란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고 한다. 선(善) 속에 악(惡)이 있다. 악 속에 선이 있기도 하다. 시비 구분은 신기루와 같이 부질 없는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탓에 극락도 지옥도 본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웃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극락을 만들어서 극락 속에서 편히 사는 이가 있다. 반면에 있지도 않은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서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있다.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은 전생으로부터 시작됐거나, 혹은 현생의 과거로부터 내가 만들어온 인연의 결과이다. 그 작은 인연의 씨앗들이 필연이 되어 지금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게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지 않은가?” 라든지,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는가?”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사람들 중에는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 비판거리만 찾아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 물론 더 나은 방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선의의 비판보다는 대안 없이 발목만 잡는 비판, 즉 비난이 많다. 공심(公心) 없이 감정에 휩쓸려 쓸데없는 비판만 늘어놓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족이요, 불화합이요, 불건강이고, 불행하다. 그런가하면 우리 주변에는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사는 이를 만날 수 있다. 이 사람을 살펴보면 대개는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근검절약과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와 똑

업동설한의 봄 소식

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스스로 주변을 극락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위에 나누주는 보살과 같은 사람이다. 돌이켜 보자, 그리고 살펴보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를 하다보면 지나간 삶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음을 후회하고, 챗바퀴 돌 듯 하는 후회를 어떻게 해야 그칠 수 있을지를 또 다시 고민하게 된다. 매서웠던 추위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당장 삭풍이 몸을 에이지만 머지않아 봄을 알리는 신호가 곧 올 테세다. 새로운 봄을 알리는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조만간 인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 만해도 새로운 기운이 나는 듯하다. 업동설한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소식에 자연의 생명이 대단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머지않아 찾아올 싱그러움 봄을 기다리며 ‘연제나 처음처럼’이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새봄을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하며 가졌던 “올 한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또 한번 되뇌어 본다.

순자(荀子)는 ‘막신일호(莫神一好)’라고 말했다. 사람이 어느 한 가지를 사무치게 좋아하면 이보다 더 신나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요즘 너나 나나 특별한 것이 없으면 거의 다 비슷한 것이 많다. 웬만큼 해서는 남들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없다는 얘기도 된다. 그만큼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남들만큼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다. 하물며 남들만도 못한 노력을 들여서야 성공하려면 본인의 숨은 기량 한가지를 잘 발견해서 미치도록 몰입해야 한다. 즉 한가지만큼은 남들보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스키이트 세계인에 감동을 주는 김연아 선수나 축구공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박지성 선수, 발레리나 김수진, IT계의 거장 故 스티브 잡스처럼. 새 봄을 맞아 새해 작심삼일처럼 흐지부지됐던 각오를 되새겨보자. 자신과 맞는 한가지 수행법을 찾아 그 수행에 올인하는 한해가 되면 어떨까? 참다운 수행의 맛을 느끼는 한해가 되자. 수행의 참맛을 아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보자. 모든 길이 하나로 통하듯 모든 수행법이 하나로 일치됨을 스스로 깨닫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 지사장명 | 연 락 처
부 산 지 사 | 이 재 진 |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 손 문 철 |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 양 행 선 |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조 동 제 |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 박 영 애 |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 청운스님 |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정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희동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